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

2010년도 제9차 회의

1. 일 자 2010년 4월 22일 (목)

2.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

3. 출석위원 강 명 헌 위 원 (의장직무대행)

박 봉 흠 위 원

김 대 식 위 원

최 도 성 위 원

이 주 열 위 원 (부총재)

임 승 태 위 원

4. 결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(총재)

5. 참 여 자 임 종 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 태 혁 감 사

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

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

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

안 병 찬 국제국장 유 병 갑 금융통화위원회실장

정 희 식 공보실장

6. 회의경과

가. 의결안건

〈의안 제18호 — 「공개시장조작규정」개정(안)〉

(1) 담당 부총재보가 유동성 조절 원활화를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

(2) 위원 토의내용

본 안건과 관련하여 2010년 4월 19일 개최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금융시장국장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

일부 위원은 통안증권 초과낙찰시 한도를 10%로 정한 배경을 물었으며,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통안증권 2년물 통합발행 시행 이후 초과응찰시 유찰 률 등 과거의 경험과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하였다고 답변하였음

다른 일부 위원은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중 신용증권 관련조항은 일몰 조항이므로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동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으며,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일반인들이 부칙까지 읽어보아야 동 내용을 알 수 있는 등 이용상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

(3) 심의결과

원안대로 가결

의결사항

「공개시장조작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〈붙임〉「공개시장조작규정」개정(안) (한국은행 홈페이지 '통화정책-금융통화위원회-의결사항'참조)

〈정부측 열석자 발언〉

한편 의장은 상정된 일부 안건을 처리한 후 정부측 열석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으며, 이에 차관은 중앙은행과 정부간 건설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간략히 신임 인사를 한 후 유고 퇴석하였음